

배포 2024. 05. 10.(금)

보도

2024. 05. 12.(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내, 청년 주택공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 올해 청년 대상 3.3만 호 공급 ... 공급물량 지난해보다 0.6만 호 증가
-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에 맞춰 내 청년주택 전담조직 구성
- 연내 청년층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모델 개발 및 선호입지 지속 발굴

□ LH는 올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을 확대해 3.3만 호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내 청년주택 공급계획

(단위: 만호)

구분	'23년 공급실적	'24년 공급계획	증감	
합계	2.7	3.3	+22%	
건설형	공공분양(뉴홈)	0.35	0.72	+106%
	통합공공임대	0.14	0.17	+21%
매입형	매입임대	1.14	1.36	+19%
전세형	전세임대	1.07	1.05	-2%

전년대비 '24년도 내 청년주택 공급계획 증감



□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 4월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 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 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 주택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 지난 4월 8일 개최된 청년주택 킷오프 회의에는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 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주거복지, 기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요에 기반한 청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올해에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청년주택추진단	책임자	팀 장	이정환	(055-922-4020)
	청년주택팀	담당자	차 장	권영한	(055-922-4021)